재외동포의 창

2015 | 01

특집 |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엮는 수출 상담회

한상 6개국 8개사와 국내 23개 우수 중소기업 참여

화제 | 모국 체험 나선 동포 장학생 "민족 자긍심 새삼 느껴"

34개국서 온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131명 산업 시찰·유적 답사

한민족 공감 | 박근혜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
▶ 청동 그릇의 몸체 바닥면

광개토대왕명 청동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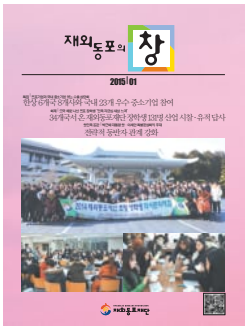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고구려 그릇

1946년 5월에 국립박물관은 신라 시대의 고분 발굴 조사를 시작했다. 대상은 경주 시내 고분군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노서동 고분군의 140호분이었다. 이 고분에서는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대왕과 관련한 청동 그릇이 출토돼 '호우총(壺杅塚)'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그릇을 통해 고구려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릇을 '호우'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호우는 반구형의 몸체에 납작한 모양을 한 뚜껑으로 이루어졌다. 몸체는 높이 10.3㎝, 최대 지름 23.8㎝여서 지금까지 발견된 둥글넓적한 모양의 청동 그릇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굽이 있는 바닥에는 '을묘년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 호우십(乙卯年 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 壺杅 十)' 16자와 상부 중앙에 '정(井)' 자가 돋을새김돼 있었다.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은 광개토대왕 사후에 올린 시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묘년(乙卯年)'은 광개토대왕이 서거한 412년 이후인 415년(고구려 장수왕 3년)으로 추정된다. 제일 끝에 나오는 '十'에 관해서는 10개를 의미한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다. 상부 중앙의 '井'에 관해서도 제작자와 관련된 표식이라는 등 몇 가지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 어떻게 신라의 무덤에 묻히게 된 걸까? 호우의 제작 연대로 짐작되는 415년은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 온, 신라 제18대 실성왕 때이다. 왕자를 볼모로 삼았던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로 볼 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기념하기 위한 물건이 신라에 전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광개토대왕의 장사를 지낸 뒤인 415년에 고구려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때 제사에 참례했던 신라인이 제기로 사용한 그릇을 경주로 가져왔을 수 있다.



Cover Story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34개국 131명의 동포 유학생이 산업 시찰 및 문화 탐방을 했다.

CONTENTS

재외동포의 창

02 한국의 얼 광개토대왕명 청동 그릇
04 특집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엮는 수출 상담회
06 신년사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07 동포 소식 도쿄서 재일민단 주최 혐한 스피치 근절 심포지엄 외
10 기획_재외동포 이민사_13 110년 역사 넘기며 재도약하는 미국 한인사회
12 화제 모국 체험 나선 동포 장학생 "민족 자긍심 새삼 느껴"
14 글로벌 코리안 유럽에 한국 문화 알리는 송효숙 WCN 대표
재일동포 메세나 운동가 하정웅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연임 성공한 미네소타 주 램지 카운티 존 최 검사장
16 지구촌 통신원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준공식
17 동포정책 Q&A 달라진 재외동포 건강보험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재
19 동포의 창 전교생 124명이 한국어로 인사말 전하는 미국 학교
20 OKF 뉴스 '2014 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 서 동포 현안 발표 외
22 동포문학 빨래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낱말 맞추기
24 고향 소식 전국 3대 트레킹 구간으로 꼽히는 선자령
26 재단 공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2015 01 January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인쇄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제2차 한상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엮는 수출 상담회

한상 6개국 8개사와 국내 23개 우수 중소기업 참여

재외동포재단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해외 한상(韓商)을 엮는 '제2차 2014 한상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는 재외동포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후원했다.

수출 판로 개척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에서 3천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대형 게임업체 MTI, 싱가포르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유통사 DIGILOTECH 등 한상 기업 8개사와 국내 기업 23개사가 참여했다. 동포재단은 한상넷(www.hansang.net)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외 시장 특성을 잘 아는 한상의 수요에 맞춰 국내 기업을 연결한 것이다.

맞춤형 수출 상담으로 실질 성과 도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상담회에는 특화된 상품인 LED와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84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산업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품목 중 하나가 LED와 게임 콘텐츠"라며 "사전 수

▲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 홍콩 등의 한상 기업 8개사가 참가해 국내 게임, 모바일앱, LED 조명 분야의 23개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을 벌였다.

요 조사에서도 한상의 관심이 높아 수출이나 합작 등 실질 협력 관계로 진전될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한상대회는 한상 비즈니스의 제일 큰 잔치지만 1년에 한 번이라 대화를 자주 열어달라는 국내 기업의 요청도 있었다"며 "수출 상담회는 한상대회 사전 프로그램의 성격도 있으면서 수시로 열리고 품목도 제한해 집중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에 실질 계약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율을 거친다. 우선 샘플을 가져가 현지 소비자의 반응도 살펴야 하고 제품 환경 검사 등 통관 절차에도 시간이 걸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상담회에 국내 기업이 몰린 것은 현지의 유통망을 갖고 있거나 사정을 잘 아는 동포기업이라서 믿고 해외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에 참여한 한상 바이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은 해외에서 통용될 만큼 좋지만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맞춤형 포장과 기능 보완 등 세밀한 부문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MTI 모바일게임 담당인 김진태 과장은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수준은 세계적이라 상담장을 찾았다"며 "이번 상담에서 몇몇 업체와는 본격적으로 사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과장은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와 더불어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며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품질의 유지와 사후관리는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조언했다.

현지 사정 잘 아는 한상 통한 수출 기대

미국에 연간 15만 개 이상의 LED 조명 제품을 수출하는 MK일렉트로닉스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상담회에 참여했다. 홍삼표 MK일렉트로닉스 대표는 "국내 LED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제품력에 자신이 있다"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상담회를 찾았는데 바이어의 반응이 좋다"고 환영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은 해외 유통시장을 잘 아는 현지화된 한상 기업과 상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 제작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면서 "초기 거래는 샘플 구매와 시장 테스트 수준이지만 안착할 경우 비약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갈 수 있는 매력이 있어 국내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게임 분야 가운데 특히 모바일 분야의 업체 상담이 눈에 띄었다. 과거 한상대회에서 가장 주목하던 분야가 식품류와 건강 보조기구 등 웰빙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첨단 분야로 옮겨가는 추세이며 IT 강국에 맞게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바이어들은 평가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상넷 회원사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상담회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 시도한 상담회를 앞으로 정례화해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4차 세계한상대회는 오는 10월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한상대회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강화해 한상의 국내 투자 활성화 모색, 신흥 시장 지역별 세미나, 산업(업종)별 국내외 한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는 국력 신장의 견인차"

희망찬 을미(乙未)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민족 이주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을 뜻 깊게 기념하였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남북 분단의 상징인 38도선을 넘어 한반도를 종주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범세계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미주동포 사회의 자조 노력으로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 냄으로써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이 곧 우리 국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150년의 해외이주 역사 속에서 놀라운 적응력과 자생력을 길러온 우리 700만 재외동포는 전 세계 방방곡곡마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한민족의 기상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경계가 흐려지고 민족 간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재외동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상호 유대감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와 행정적 불편 해소를 위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는 향후 재외선거제도 개선, 복수국적 확대, 과세 문제, 재외동포 우수 기업과 인재들의 국내 진출 확대 등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외동포 개개인이 거주국 현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소중한 국력의 외연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구촌 170여 개국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며, 글로벌 시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는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의 첨병으로서, 나아가 동포사회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단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도쿄서 재일민단 주최 혐한스피치 근절 심포지엄

▲ 도쿄서 재일민단 주최로 헤이트 스피치 근절 심포지엄이 열렸다.

혐한 시위로 대표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 금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중앙본부에서 민단 주최로 열린 헤이트 스피치 근절 심포지엄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자유권 조약과 인종차별 철폐 조약은 가맹국인 일본에서 국내법의 일부가 됐지만 그것을 구체화한 차별 금지법과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별 금지 기본법을 만들어 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는 것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의견서가 속속 채택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출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헤이트 스피치는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본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움트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헤이트 스피치 단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 수정주의' 세력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UCLA 총한인학생회, 캠퍼스서 '아리랑 콘서트' 진행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 2014년 12월 4일 대학 내 브루인 플라자에서 '아리랑 콘서트' 플래시몹 행사를 열었다. UCLA 총한인학생회(UKV)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오케스트라 17명, 록밴드 4명, 사물놀이 14명 등 모두 35명이 참여했다.

▲ UCLA 총한인학생회가 주최한 '아리랑 콘서트'가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졌다.

이들은 한국 전통의 본조아리랑인 '서울 아리랑' 협연 편곡 버전을 UCLA 학생들 앞에서 직접 연주하고 아리랑의 유래와 의미를 소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LA 한국문화원이 후원했으며, 음악교육 자선단체 '러브 인 뮤직'의 황현정 편곡자가 편곡과 지휘를 맡았다. 또 UCLA 한국음악과 김동석 전 교수는 사물놀이 연주를 지도했다.

특히 이날 공연은 UCC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도 올렸다. UCLA 총한인학생회 관계자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북한 인권 등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UCLA 총한인학생회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인학생 단체로, 대학 내 중국 · 일본 · 대만 학생단체와 교류하는 동시에 한인 학생들 돕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 2014 송년의 밤 행사

▲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 '2014 송년의 밤' 행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한인회가 주최한 2014 남아공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샌턴 인디버 호텔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해에는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남아공 한인 사회는 2014년 5월 26일 이민법이 개정되고 비자 발급 시 납부하던 귀국 보증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증금 환급 문제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남아공 내무부는 귀국 보증금 환급 신청은 영수증에 있는 해당자가 모두 주한 남아공대사관이 발행한 원본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귀국 보증금은 1인당 성인 100만 원, 미성년자 80만 원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남아공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업 · 학업 · 사업 비자 등 임시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입국자들은 귀국해서 원본 영수증을 받은 뒤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와야 해 시간과 항공료 등 제반 문제로 사실상 반환 신청이 어렵다는 것.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답답한 나머지 대사관에 문의해 오는 동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남아공 내무부에 서한을 발송, 우리 동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답장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 졸업식

"한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어요."

플로라 김(62) 씨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12월 3일 열린 고려인 노인대학 졸업식에서 졸업 소감을 묻자 들뜬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고려인 2세인 그녀는 "모국의 역사와 전통을 잘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잘 알게 됐다. 이제는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이날 함께 졸업한 올가 한(67) 씨는 "어릴 때 배웠다가 대부분 잊어버린 한글을 다시 배우게 돼 좋았다. 노인대학을 다니며 젊어지는 것 같아 행복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 고려인 노인대학 3기 졸업식에서 1, 2기 졸업생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고국의 역사와 말을 모르는 고려인들을 위해 현지 한국인 교민들이 뜻을 모아 2012년에 설립한 알마티 고려인 노인대학은 지금까지 총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생은 18명이었다. 노인대학은 1년 수료 과정으로 주 1일 강의가 진행되며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문화, 한글, 한국사 등을 고려인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약 13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이들은 옛 소련 시절인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 일대에서 살다 이곳으로 옮겨온 고려인 1세의 후손이다. 소련 정권은 강제 이주 후 민족성 말살 정책으로 고려인에게 러시아어만 사용하토록 강요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 고려인은 한글과 한국어를 모른다.

호주 커피업계 '미다스의 손' 한인 바리스타

"호주는 스타벅스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신흥 커피 강국이고, 저마다 개성을 지닌 소규모 카페들이 독특한 맛과 분위기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스타나 로스터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거죠."

호주 시드니 시내 뉴타운에 위치한 브루타운(Brewtown) 카페에서 일하는 김종범(29) 바리스타의 말이다. 그는 앳된 용모지만 자신이 만드는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어느 누구 못지않다. 주말에는 빈자리가 없어 20~30분씩 기다려야 주문할 수 있는 이름난 카페인 '브루타운'에서 수석 바리스타 겸 로스터로 일하는 김 씨는 이미 시드니 커피업계에서는 상당한 유명 인사로 통한다. 그동안 그가 바리스타 겸 로스터로 거쳐 간 카페마다 호주 유력 일간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매년 발표하는 맛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 호주 커피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한인 바리스타 김종범 씨

이민 1.5세인 그는 열두 살 때 부모와 함께 호주로 건너온 뒤 시드니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스물한 살 때이던 2004년 시드니 북서부 페넌트힐 지역에 '코너카페'라는 자신만의 카페를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커피업계에 발을 디뎠고 주로 동영상이나 다른 유명한 카페들을 기웃거리며 독학으로 익힌 그의 커피 기술은 지역에서 이름이 나게 됐다. 2009년 한국의 투자자와 손잡고 서울 논현동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2015년에 시드니 인근에 또다시 자신만의 카페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한센병 환자 일상 따라간 20년' 도쿄서 한인 작가 사진전

▲ 한인 작가의 사진전인 '한센병 환자 일상 따라간 20년'이 도쿄에서 열리고 있다

20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을 필름에 담았던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고(故) 조근재(1933~1997년) 씨의 유작 전시회가 도쿄에서 열리고 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재일 한국인 2세로 태어난 조 씨는 1961년 한센병 요양소를 방문, 재일 한국인 환자들과 만난 것이 계기가 돼 한센병 환자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20년간 일본 전국의 요양소에서 찍은 사진 2만 점 가운데 81점이 이번 전시회에 소개됐다.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일본인 오타케 아키라(大竹章) 씨는 조 씨의 사진에 대해 "입소자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생활 모습은 길게는 한 달씩 요양 시설에 머물며 숙식을 함께하곤 했던 조근재 씨만이 찍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피해의 한 단면이면서도 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 비해 주목도가 낮았던 일본 내 한인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인 환자들은 이국땅에 격리된 채 비참한 시간을 보냈지만 명절에는 함께 잔칫상을 차리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하는 등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애썼다.

'이 사람들에게 빛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전시회는 5월 31일까지 일본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 국립 한센병 자료관에서 열린다.

110년 역사 넘기며 재도약하는 미국 한인사회

노동 이민으로 시작해 주류 사회 당당 진입

1

2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를 떠난 한인 102명은 일본 고베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로 옮겨 타고 이듬해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노동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첫 해외 이민이었다. 첫해의 1천133명을 시작으로 1904년에 3천434명, 1905년에 2천659명 등 모두 7천226명으로 늘어난 이민자는 낯선 이국땅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열악한 환경에 임금도 낮은 농장 노동자 생활이었지만 이민 1세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똘똘 뭉쳤다. 한인들은 대한인국민회, 여자애국단, 동지회, 하와이 대한부인회 등을 결성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와이 이민 1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사진결혼이 유행했다. 신부가 일본을 거쳐 하와이로 오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신랑이 부담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 교육 문제가 대두하면서 이민사회에 이농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사람이 급증해 1920년대 말에는 농장에 10%도 채 남지 않았다.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1960년대 유학생의 진출, 1970년대 맨손의 도미 행렬, 1980년대 이후 투자 이민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를 급격히 팽창시켰다. 1965년 신이민법이 발표된 뒤 먼저 미국에 정착한 이들이 가족을 초청하면서 1991년까지 초청 이민자만 70만 명에 달했다. 한인으로서는 군 입대 외에는 좀처럼 얻을 수 없었던 미국 시민권도 1952년 종합이민법이 통과되면서 획득이 가능해졌다. 5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미국 귀화가 허용되자 많은 한인 1세가 열심히 공부해 시민권을 얻고 미국에 귀화했다.

놀라운 교육열로 2세의 사회 진출 도와

1990년 뉴욕 브루클린 청과시장을 중심으로 번진 흑인들의 불매운동에 이어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흑인 폭동은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와 함께 한인들에게 정신적, 문화적 충격을 던져 주었다.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4명의 백인 경찰관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LA 흑인들이 반발하며 1주일간 벌인 폭동에서 한인 동포 이재성 씨가 총격으로 숨지는 등 한인 사회의 피해가 컸다. 한인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타 인종과의 공생과 커뮤니

3

1. 20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하와이 호눌룰루 시내에서 펼쳐졌다. **2.**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조형물 **3.** 1992년 4월 30일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당시 폭도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 **4.** 1919년 4월 1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재미동포들이 제1회 한국독립의회를 연 뒤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5.** 2011년 6월 4일 미주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1회 미주 한인 정치 콘퍼런스 및 차세대 리더십 포럼 **6.** 2014년 8월 4일 미국 뉴저지 주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플라자에 세워진 '일본군 강제 동원 군 위안부 기림비'

티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한인 2, 3세들은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며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LA 코리아타운은 물론 어느 지역에나 한인회, 향우회, 동문회, 참전동지회, 세탁업협회,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등 숱한 단체가 조직돼 있다. 한인 단체는 1990년대 이후 정치인 후원회에 참여하고 동포 행사에 주류 사회 인사는 물론 타 인종을 초대하는 등 지역사회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미국 전역에서 기반을 다진 한인 1세대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놀라운 교육열을 발휘해 후손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부모의 교육열 덕분에 잘 준비된 후손들은 정치인, 공무원, 변호사, 의사, 금융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성장했다. 재미동포 기업인은 전 세계 한상과 네트워크를 이루며 동포 기업인의 단결을 이뤄냈다. 자력으로 미국 경제계에 우뚝 선 한인 기업인의 이름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이제는 첨단 업종, 전통 업종 등으로 일괄해 지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2014년 버지니아 주에서 한인 단체들은 힘을 모아 주 상 · 하원에서 '동해병기법'을 통과시켰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부터 버지니아 주내 공립학교에서 채택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동포들은 2014년 5월 30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피스 메모리얼 가든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다. 이어 뉴욕 맨해튼에도 추모비가 세워지는 등 기림비가 잇달아 세워졌다. 한국 바로 알리기 운동은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시작한 한인 동포들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3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미국 동포는 209만 1천432명으로 나타났다.

▲34개국에서 온 131명의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은 12월 21일 '2014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 · 문화체험' 의 일환으로 부산의 해동용궁사를 방문했다.

모국 체험 나선 동포 장학생 "민족 자긍심 새삼 느껴"

34개국서 온 재외동포재단 장학생131명 산업 시찰 · 유적 답사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34개국 131명의 동포 유학생이 모국의 발전한 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투어에 나섰다. 러시아,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미국, 일본, 중남미 등지에서 온 동포 장학생들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당진, 공주, 부산에서 산업 시찰 및 문화 탐방과 상호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뿌리를 배우고 정체성 함양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 차세대 장학생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해 오늘날의 발전상과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하도록 연 2회 역사 ·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모국 수학을 잘 마치고 한민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이 주관한 역사 · 문화 체험에서 학생들은 첫날 오후 충청남도 당진의 현대제철소를 방문해 세계적 수준의 철강 설비를 둘러보았다. 저녁에는 전통 무예인 태껸을 배우고 '한국 역사 · 문화 골든벨'에 참여해 지식을 겨뤘다.

이어서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에서 유학 생활의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초청 장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안내를 하지만 선배 장학생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을 통해 선후 배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유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참가자들이 제일 반기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올 3월에 고려대 노어노문과에 입학할 예정인 몽골의 엄도영(18 · 여) 학생은 "6살에 이민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접해 볼 기회가 적었다"며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면 당연히 알았을 것을 뒤늦게 보고 배우지만 무척 즐겁고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용욱(30 · 남) 학생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당진현대제철소를 방문하

▲참가자들은 12월 19일 공주대 한민족교육원에서 전통 무예인 '태껸'을 배웠다.
◀12월 21일 학생들은 부산도예교육센터를 찾아 컵에 직접 무늬나 이름을 새기며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했다.

고 실감했다"며 "모국이 잘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포에게는 큰 힘"이라고 뿌듯해했다.

케냐에서 와 어학연수 중인 신혜경(19 · 여) 학생은 "한국의 전통 무예에 '태권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태껸을 알게 돼 놀랍다"면서 "태권도도 배운 적이 있는데 둘 다 공격보다 방어를 중시해 한민족이 평화민족이란 걸 새삼 느꼈다"고 기뻐했다.

항구도시 부산의 현재를 배우다

둘째 날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재래시장인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을 탐방하고 태종대와 국립해양박물관을 견학했다.

국제시장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일본인이 철수하자 자연스럽게 형성돼 6 · 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장사를 하며 활기를 띠었고, 미군 군용물자와 밀수입 상품이 이곳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곳으로 우리 근대사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참가자들은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에서 삼삼오오 흩어져 향토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고려인 4세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우스로브 아나톨리(21 · 남) 학생은 "유학으로 처음 모국 땅을 밟았는데 본고장의 한식이 최고"라며 "순두부가 가장 맛있어서 이번에 시장 방문 때도 맛보았다"고 즐거워했다.

셋째 날에는 오전에 부산도예교육센터를 찾아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해 컵에 직접 무늬를 새기거나 이름을 적어 넣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로 이름난 관음성지(觀音聖地) 해동용궁사를 답사하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학생들은 부산 체험의 마지막 답사지인 평화공원(유엔묘지)을 견학하고 일정을 마쳤다.

가톨릭의대 입학 예정으로 멕시코에서 온 박장희(19 · 남) 학생은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하고 뿌리도 익히려고 모국 유학을 선택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커졌다"고 소감을 밝힌 뒤 "외과 전문의가 되어 해외서 의료 선교 봉사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번 역사 · 문화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한민족의 해외 진출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 아래 해양산업과 물류,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부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익혀 고국의 발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육 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1997년부터 석 · 박사과정 초청 장학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학사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에 한국 문화 알리는 송효숙 WCN 대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세계화에 앞장

▲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WCN 송효숙 대표

'유럽의 심장',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예술 기획사 WCN(World Culture Networks)이 있다. 2011년 12월 설립된 WCN은 지난 4년 동안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각국에서 20회가 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친선 음악회, '난타' 공연, K-팝 댄스 페스티벌, 태권도에 타악기를 곁들인 넌버벌 퍼포먼스 '탈(TAL)' 공연 등 다양하다.

'한국 문화 유럽 알림이'를 자처하는 이 기획사는 송효숙(여 · 53) 대표가 꾸려가고 있다. 송 대표가 유럽 각국에서 친선 음악회를 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19년간의 유럽 생활을 통해 문화 콘텐츠가 인류 소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절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9일과 15일에도 우크라이나와 불가리아에서 국내 정상급 성악가가 출연하는 친선 음악회를 열었다.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불가리아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 테너 정호윤, 소프라노 김영미, 바이올린 유승희(빈 폴크스오퍼 종신 부악장), 피아노 채문영 등이 공연했다.

친선 음악회를 필두로 한국 문화 공연도 10여 차례 무대에 올렸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공연 무대가 빛났다. 2012년 '난타' 공연, 태권도 퍼포먼스 '탈' 공연, 이듬해 K-팝 댄스 페스티벌과 '점프' 공연, 최덕주 보자기전, 국제 마스터 클래스, 연세 콘서트 콰이어 유럽 순회공연 등이다.

송 대표는 "지금까지 추진한 한국 문화의 유럽 전파가 '음악 한류'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동안 유럽 각국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만큼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우월한 문화 콘텐츠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재일동포 메세나 운동가 하정웅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국내에 미술 작품 1만 점 기증

재일동포인 하정웅(75)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의 이름 앞에는 늘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술 작품 1만 점 기증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 이사장은 50여 년간 수집한 미술품을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의 국공립 미술관 · 박물관, 대학 기관에 기증한 재일동포 메세나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에도 힘을 써 '맹인들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하 이사장은 2014년 9월 자전적 에세이 '날마다 한 걸음'을 냈다. 책에는 가난 속에서도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고 화가를 꿈꾸던 그가 50년간 미술품 1만 점을 모으고 모국에 기증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숱한 일화를 담고 있다.

"미술 작품에서 조국의 역사를 배웠다"는 하 이사장이 처음 미술품을 수집하게 된 것은 25세의 나이에 재일 한국인 고 전화황 화백의 작품 '미륵보살'을 접하면서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빚을 갚으려고 시작했던 가전 판매점이 도쿄

▲ 하정웅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그린 회화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올림픽 특수로 소위 '대박'이 나면서 "그야말로 돈을 쓸어 모으던 시절"이었다. 미륵보살의 기도에 감동한 그는 이 작품을 그 자리에서 사들인 것을 계기로 지난 50년간 미술품 수집의 길을 걸었다.

그가 수집해 기증한 작품 중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우환의 작품만 42점으로, 작품가를 따지면 수백억 원도 넘을 정도다. 그러나 하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모은 미술품을 단 한 점도 팔지 않고 전부 한국의 몇몇 미술관에 기증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1993년 212점으로 시작해 20년간 2천300점 이상을 기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의 65%가 '하정웅 컬렉션'일 정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15년에 그의 이름을 딴 '하정웅 미술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이다. 그의 성을 딴 영암군립 하(河) 미술관은 그가 군에 기증한 1천800여 점의 미술품 전시를 위해 건립됐다.

연임 성공한 미네소타 주 램지 카운티 존 최 검사장

한인 최초 카운티 검사장 기록 이은 쾌거

4년 전 미국 미네소타 주 램지 카운티 검찰 수장에 오른 한인 존 최(한국명 최정훈 · 44) 씨가 연임을 확정했다. 미네소타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공지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램지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총 투표자의 98.66%에 해당하는 12만 3천239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램지 카운티는 미네소타 주의 87개 카운티 가운데 하나로 주도(州都) 세인트폴을 포함해 19개 도시를 관할한다. 2010년 센서스 결과 인구는 50만 8천여 명으로 미네소타에서 2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존 최 미국 미네소타 주 램지 카운티 검사장

최 검사장은 세 살 때인 1973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해 마켓 대학교와 햄린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최 검사장은 대학을 마친 후 변호사가 돼 법률회사에 다녔다.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2006년 세인트폴 시 검사장이 됐다. 그는 70명의 직원을 이끌고 세인트폴에서 갱을 몰아내고 시정의 부패를 척결하는 맹활약을 펼친 끝에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시 검사장 시절 최 검사장은 국제도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최우수 검사에 오르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꿈이 경찰관이었다는 그는 한인으로는 처음 미국 카운티 검찰 총수가 된 기록을 세웠다.

최 검사장은 "부모님은 늘 3가지를 가르쳤다. '부지런하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리고 미국에 동화하라'고 했다"면서 "부모님의 가르침 덕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 12월 3일 런던 도심 템스 강변에서 영국군 참전 기념비 준공식이 거행됐다.
▶ 영국을 방문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12일 영국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준공식
정전협정 61년 만에 건립 결실

김태한 | 연합뉴스 런던 특파원

영국 런던에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세워졌다. 영국군 참전 기념비는 한국전 참전 16개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템스 강변의 영국 국방부 인근 임뱅크먼트 가든에 건립돼 12월 3일 준공식이 거행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영국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 임성남 주영대사,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영국은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 병력을 파병해 1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특히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는 뛰어난 활약을 벌였다. 유엔군은 1951년 3월 14일 서울을 수복했고 한 달 후 중공군은 서울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 파주시 설마리에서 대규모 공격을 펼쳤다. 이에 맞서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인 열세로 중공군 3개 사단 4만 2천여 명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극한 상황에서 끝까지 저항해 652명 가운데 67명만이 살아남았다. 이 전투로 중공군의 남하는 지연됐고 유엔군은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글로스터(The Glorious Glosters)'로 칭송받으며 미국 트루먼 대통령 부대 훈장, 영국 최고 훈장을 받았다.

영국군은 글로스터 대대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1968년 설마리에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한 뒤 1975년부터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국에는 참전을 기릴 만한 변변한 시설이 없어 기념비 건립 사업이 추진됐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윌리엄 왕세손과 기념비 기공식을 연 것을 계기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윤 장관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돈독한 양국 관계의 상징인 참전 기념비를 통해 앞선 세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글로스터 공작을 통해 기념비 준공 노력을 치하하면서 "참전 기념비가 두 나라 우호 증진의 가교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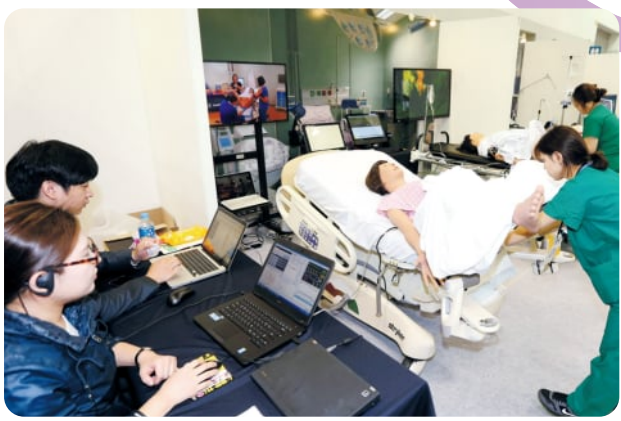
참전 기념비는 포틀랜드석을 깎아 만든 5.8m 높이의 첨탑 앞에 영국 조각가 필립 잭슨이 조각한 영국군 청동상이 서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첨탑 4개 면에는 한반도 지도, 태극기, 영국기, 유엔기, 한반도의 풍경 등이 새겨졌다. 한국전쟁에 8만 1천84명의 영국군(비전투원 포함)이 참전해 1천106명이 전사하고 1천60명이 포로로 잡혀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념비 주변의 바닥 일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경기도 포천에서 가져온 석재를 사용했다. 참전 기념비는 런던의 상징물인 빅벤과 대관람차 런던아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전 용사 앨런 가이는 "런던에 세워진 한국전쟁 참전비를 살아서 보게 돼 감격스럽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참전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달라진 재외동포 건강보험

공짜 의료 혜택 No,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화



▲ 건강보험 제도가 잘 갖춰진 한국은 치료 수준도 높다. 사진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의료 장비

일부 재외동포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에서 수술 치료 등 보험 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17일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동포(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에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최초 입국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될 뿐 재입국 재외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동포는 재입국한 날로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최초 입국 가입자는 가입 3개월 이후 수술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에 재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출국하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외동포의 부정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수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등 의료수가가 비교적 비싸거나 행정 절차가 느린 지역의 재외동포가 한국 내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사례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재외동포는 2009년 4만 2천232명에서 2013년 9만 4천849명으로, 같은 기간 진료 금액은 4천426만 달러에서 9천771만 달러로 인원과 금액 모두 2.2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시민권자 7만 489명, 영주권자 2만 4천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 4천556명), 미국(3만 5천574명), 캐나다(1만 2천502명) 등의 순이었다. 동포들은 백내장, 축농증 수술 등 비교적 가벼운 수술 치료를 많이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재입국 재외동포도 최초 입국 재외동포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재외동포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Q 재외동포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A 이전까지 F-4 비자를 지닌 재외동포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8일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일부를 개정해 국내 소득과 재산이 지역가입자의 평균 수준을 넘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해 이전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전년도 말 평균 보험료로 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여 원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1일 아세안 정상들에게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소개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과 한 · 아세안 정상들이 12월 12일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행정 혁신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2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주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1~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 ·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정상회의이자 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다자 정상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 · 아세안 협력 관계 평가 및 미래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25년간 쌓아온 협력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 행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이를 위해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 ▲정치 · 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평화의 견인차로 ▲사회 ·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융성의 동반자로 공동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새마을운동을 통한 아세안 농촌의 빈곤 퇴치 ▲연간 100여 명 규모의 아세안 이공계 우수 인재 초청 사업 ▲내년에 한 · 아세안 협력 기금은 700만 달러로, 한 · 메콩 협력기금은 100만 달러로 확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 경험 공유 ▲아세안 사무국에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 대비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 ·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 ▲대(對) 동남아 1단계 정상 외교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정치 · 안보, 경제, 사회 · 문화, 한반도와 국제 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한 ·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2020년까지 상호 교역량을 2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9개 나라와 양자 회담을 했다.

전교생 124명이 한국어로 인사말 전하는 미국 학교

"한국 역동성에 반해 한글 배워요"

▲ 교육부 산하 뉴욕한국교육원 박희동 원장 일행이 지원금을 전달한 뒤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욕한국교육원이 12월 4일 한국어 채택 지원금 명목으로 위스퍼링 파인스 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 학생이 전혀 없는 미국 학교에서 전교생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미국 뉴욕 인근에 위치한 '위스퍼링 파인스 스쿨'은 초·중·고교생 124명으로 짜인 소규모 사립학교다.

12월 4일 교육부 산하 뉴욕한국교육원 박희동 원장 일행이 이 학교 문을 들어서자 강당에 모여 있던 전교생 124명이 일제히 의자에서 일어나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이 학교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미국 동부 지역 26개 학교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에서 '한국어 채택 지원금' 명목으로 연간 1만 3천 달러(1천450만 원)를 후원하는 곳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학교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이다. 박 원장이 학교 측에 지원금을 전달하자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은 일제히 한국말로 "나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며 정중한 예의를 갖춰 목례까지 했다.

이 학교가 스페인어와 함께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한류 때문인 듯했다.

2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형식 한국어를 가르치다 정식 교사가 된 한국인 이용근(30) 씨는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음악 등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학교위원회 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소개한 실리 앤 로런신 교장은 "제2 외국어 교육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준다"면서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가 한국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어나 일본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제2 외국어로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고 훌륭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라는 점이 참작됐다"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성취감을 심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학교 학생 대부분이 남미 등지에서 이주해온 이민자 가족 출신이라는 특성 덕분에 "외부 세계와 문화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도 한국어 교육이 안착하게 된 계기"라고 그는 평가했다.

한 주일에 두 차례 이뤄지는 한국어 수업은 기독교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해 한국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컴퓨터 교보재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살펴 "여기가 어디예요", "학교는 어디에 있지요" 등의 한국말을 가르친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한국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6년께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치고는 꽤 긴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OKF NEWS

'2014 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 서 동포 현안 발표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4 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 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재외 한글학교 교재 분석' (한국외대), '중남미 진출 한국 기업의 차세대 한인 실태 조사' (부산외대), '동시베리아 재외동포 사회 실태 조사' (한국슬라브학회),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마을 실태 조사' (동북아평화연대) 등 재단이 올해 실시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외대 김재욱 교수팀의 '재외 한글학교 교재 분석' 에서는 재외동포가 주말학교를 다니며 한글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 7~8월 81개국의 한글학교 교사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데 따르면 응답자 중 60%는 재외동포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 이라고 답했다.

▲ 재외동포재단은 2014년 실시한 조사연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4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를 개최했다.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과 대화를 하기 위해' (13%), '한국과 한국 문화 등을 동경해서' (12%), '제2외국어로 배우기 위해' (5%),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4%)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재외 한글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도 '한국계라는 정체성 확립' (33%)을 꼽았고 '한국인이라는 자각과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도 31%에 달했다.

연구팀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은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교재의 내용 개선을 희망했다" 면서 "특히 이주 역사가 오래된 러시아와 CIS(옛 소련 독립국가연합), 북미, 아시아 지역일수록 이런 요구가 강하다" 고 풀이했다.

한국어 교재의 가장 큰 단점으로 '거주국 현지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44%), '학습자 흥미를 유도하는 내용이 없다' (17%), '학습활동이 다양하지 않다' (16%) 등이 꼽혔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수행한 '미국 뉴욕 · 뉴저지 지역 차세대 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 · 보급 · 사용 현황 연구' 에서는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어 사용률이 급락, 2세 중에서는 절반가량만 한국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재미동포 1세대의 가정 내 한국어 사용률은 94%에 달했으나 1.5세대에서는 78%, 2세대에서는 51%로 하락했다. 전체 세대의 한국어 사용률 평균은 79%로, 다른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보다 모국어 사용률이 낮았다. 미국으로 온 베트남 이민자의 모국어 사용률은 87%에 달했고 중국과 인도도 각각 82%와 80%에 이르러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1.5세대와 2세대 한인은 결혼 이후 한국어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한국어 사용률이 차이를 보였다. 뉴욕을 포함한 북동부에서는 69%,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는 67.5%로 나타나 한인이 몰려 사는 곳일수록 모국어를 많이 썼다. 반면 남부는 64%, 중서부는 53%에 그쳤다.

연구소는 "세계에 퍼진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1.5세조차도 이미 미국화된 채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민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며 "2세대의 민족 교육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조규형 동포재단 이사장은 "2014년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동포, 해외 권역별 동포 사회의 실태를 현장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동포재단은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발간, 국내외 1천여 곳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 따듯한 '온정'

재외동포재단은 12월 11~12일 전국 27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사할린 영주 귀국자들에게 5kg들이 쌀 3천34포를 전달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일 오후 사할린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찾았다.

▲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찾아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를 위문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조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위문품이 적지만 고국 정착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 귀국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재단도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또 "앞으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재단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양윤희 고향마을 노인회장은 "영주 귀국자 대부분은 자식이나 손자가 사할린에 남아 있어 연말연시가 되면 외로움이 더 큰데 이렇게 찾아주고 격려해주니 힘이 난다"고 고마워했다.

사할린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후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대와 그 후손 등 4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일부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국에 돌아와 인천, 안산, 파주, 남양주, 광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쌀과 생필품, 의료기기 등의 위문품을 국내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려고 격려해 왔다.

재외동포재단 2015년도 예산 500억 원 확정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518억2천8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14년보다 51억여 원(11%)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503억2천8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15억 원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으로 국제교류기금 지원 근거 조항이 삭제돼 올해 86억여 원에 이르던 지원금은 전액 삭제된 대신 정부 출연금은 137억여 원 늘어났다. 신규 사업으로는 조선족 동포 특별 지원에 20억 원,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에 10억 원이 책정됐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한글학교 운영비가 10억 원 늘어나 115억 원으로 편성됐고,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에도 3억 원이 증액됐다.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이민 50주년 기념 사업비로는 5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류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했다.

빨래

김백현 | 미국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우리는 지금
빨랫줄에 걸렸으므로 빨래다
버거우신가, 빨랫줄이여
물 먹은 마음으로 우리도 무겁다
헹굴수록 더 무거워지는 빨래

봄은 지금
영하에 걸렸으므로 겨울이다
찝찝하신가, 빨랫줄이여
언 마음으로 우리는 뾰쪽하다
파란 하늘 아래 얼어붙는 빨래

적도는 지금
고산에 걸렸으므로 한대다
정죄하시는가, 빨랫줄이여
둘로 꺾였을 뿐, 우리도 무죄다
볕 좋은 남벽이 그늘 많은 북벽이
씨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은 옛날
재심에 걸렸으므로 여긴 포도청
안 보시는가 못 보시는가, 빨랫줄이여
바지랑대 건너편 또, 한 몸의 무고한 속살
이웃이 지린 지도로 친구가 흘린 침 자국으로
흐정 벗은 빨래가 앙다문 하늘을 무찌르고 있잖나

바른 말 고운 말

뒷심/땅심

스포츠 대회에서 뒤에 가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 결국 우승권에서 멀어진 경우 흔히 뒷심이 부족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뒷심이라는 말은 끝판에 가서 회복하는 힘을 뜻합니다. 뒷심이란 말은 뒤와 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 형태가 좀 바뀌어서 뒷심으로 된 것입니다.

뒷심과 비슷한 형태의 단어로 땅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심이란 말도 역시 땅과 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땅의 힘, 즉 토지의 생산력을 뜻하는 한자어인 지력(地力)을 우리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뒷심이나 땅심이란 표현은 별개인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지면서 형태가 변화된 것이지만, '심이 장사다' 라든가 '성님이 먼저 하세요' 같이 힘을 '심'이라고 한다거나, 형님을 '성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언의 영향으로 나온 것이어서 표준어가 아닙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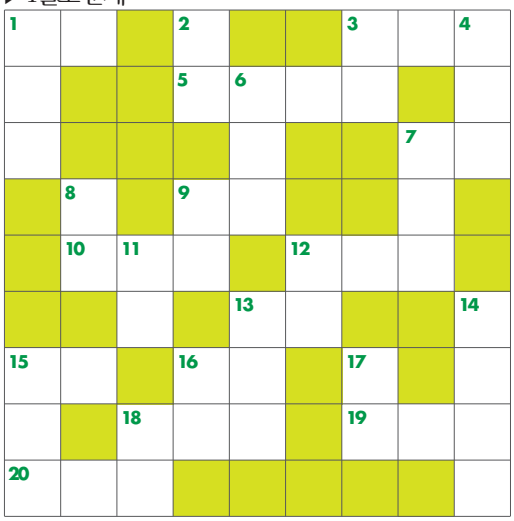
야구나 골프 중계방송에서 캐스터나 해설자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공을 쳤을 때라든가 골프 선수가 공을 쳤을 경우 '공이 잘 맞고 있다' 고 한다든가 '공이 잘 안 맞고 있다' 고 말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맞고 있다' 란 표현은 공이 저절로 야구 방망이나 골프채에 맞았다는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타자나 골퍼가 가만히 있고 공이 날아와 맞는 것이 아니고 타자나 골퍼가 직접 이 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 있다' 는 수동형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 칩니다', '잘 쳤습니다', '요즘 타격 감각이 참 좋습니다' 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김미현 선수, 공이 잘 맞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김미현 선수, 잘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옳은 표현입니다.

▶ 낱말 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1월호 문제



오른쪽 방향 열쇠

1.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대표적인 조미료로,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다.
3. 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빻는 곳
5.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7.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균을 죽이는 일. 약품, 일광, 열탕, 증기 따위를 이용한다.
9. 물건을 소유한 사람. 또는 물건이나 동물 따위를 잘 다루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10. 우리나라 고유 현악기의 하나. 오동나무로 된 긴 공명판 위에 열두 줄의 명주 줄을 매고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낸다.
12. 오랜 기간에 걸쳐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
13. 물건을 베는, 칼의 얇고 날카로운 부분
15.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
16. 북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를 차지하는 연방 공화국. 50개의 주와 하나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워싱턴이다.
18. 인도와 유럽의 전설에 나오는 동물. 말과 같은 체구에 이마에는 뿔이 하나 있다고 전해진다.
19.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설
20. 전투나 임무 수행에서 몸에 상처를 입은 군인

아래쪽 방향 열쇠

1.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따위를 동반한다.
2. 예전에 군인이 전투할 때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쇠로 만든 모자
3.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4. 간장을 담아 두는 독
6. 동양화에서, 매화 · 난초 · 국화 · 대나무를 그린 그림. 또는 그 소재.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이다.
7. 소총을 주된 무기로 삼아 싸우는 병사
8.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9.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11. 9명씩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9회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
12. 장이 서는 날. 보통 닷새 만에 서며 사흘 만에 서기도 한다.
13.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또는 그것을 익힌 음식
14.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15. 아이를 밴 여자
16. 맛을 느끼는 감각. 주로 혀에 있는 맛봉오리가 침에 녹은 화학물질에 반응해 일어난다.
17. 24절기의 하나.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북반구에서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18. 사병 계급의 하나. 상등병의 아래, 이등병의 위이다.

▶ 12월호 정답

	연		수	선	화		설	
소	개		리		조	반	상	
	소		공	학	도		가	
수	문	장		생		상	상	도
		군	대		부	하		둑
수	신	방		바		이	사	
	상		무	지	개			
연	필		기		천	군	만	마
	벌		수	맥			두	

1

전국 3대 트레킹 구간 꼽히는 선자령
동화 속 설경을 거닐다

2

3

강원도가 걷기 좋은 길로 개발한 바우길 중 옛 대관령 휴게소에서 선자령 정상까지 이어지는 1구간인 선자령 풍차길이 최근 인기를 얻으면서 바우길은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과 함께 전국 3대 트레킹 구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선자령은 대관령이나 추풍령 같은 고개가 아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성산면 경계에 있는 선자령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이 1천 157m의 산이다. 정상에서 남쪽으로 발왕산, 서쪽으로 계방산, 서북쪽으로 오대산, 북쪽으로 황병산이 펼쳐져 있다.

선자령 등산은 완만한 등산로, 풍력발전기가 있는 동화 같은 풍경, 탁 트인 바다 전망 등으로 인기가 높다.

선자령 풍차길은 해발 830m 지점에 있는 옛 대관령 휴게소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휴게소에서 동쪽의 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오른 뒤 휴게소 북쪽의 대관령 양떼목장을 거쳐 내려오는 게 보통이지만 거꾸로 오르는 이들도 많다. 정상까지의 거리는 국유림관리소를 거치면 5㎞, 양떼목장을 거치면 5.8㎞로 차이가 나는데 오를 때의 풍경은 관리소 쪽이 더 낫다.

고원 지대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목장 풍경

선자령의 해발고도는 높지만 7~8부 능선부터 시작하는 완만한 등반 코스이다 보니 특히 겨울에 눈이 쌓이면 등산로 주변으로 펼쳐지는 새하얀 설경을 감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등산로 입구에서 이어지는 완만한 능선을 2.5㎞ 정도 걸으면 풍력발전기가 휘도는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계속되는 오르막이지만 주변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도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선자령 정상에서 동쪽을 향해 보면 드넓은 동해와 강릉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서쪽으로는 고원지대에서는 보기 드문 목장을 볼 수 있다. 선자령 풍차길은 총 10.8㎞로 3시간 30분~4시간 소요된다.

하산할 때의 풍경은 오를 때보다 못하지만 몸이 휘청거릴

1. 하늘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선자령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 눈 쌓인 백두대간 선자령에 몰린 등산객들 **3.** 선자령의 설경을 즐기는 등산객들 **4.** 눈 쌓인 선자령 능선 **5.** 겨울 선자령에 등산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6.** 양떼목장의 양들 **7.** 선자령 부근의 눈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복수초

정도로 몰아치던 바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무작정 내려가기만 하는 길도 아니다. 조금 힘에 부치는 오르막이 두 번 나타나고 숲과 작은 개울을 지나게 돼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도중에 2005년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촬영지이기도 한 하늘목장도 볼 수 있다.

산간 고랭지인 대관령은 채소를 경작하고 가축을 살찌우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40여 곳의 목장이 운영되기도 했다. 1974년 조성된 하늘목장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990만㎡ 규모의 초대형 목장이지만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지 않다가 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목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뒤 2014년 9월에 문을 열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하늘목장의 숲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수십 종의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하늘목장과 선자령의 표고 차는 약 100m밖에 되지 않아 입구에서 산책하듯 걷는다면 선자령까지 약 1시간 30분 걸린다.

선자령 풍차길은 전문 트레커에게는 싱거운 곳일 수 있지만 초보자가 오르기에는 적당하다. 그러나 산은 산이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백두대간의 높은 해발고도 탓에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산골짜기 골바람까지 맞바람이 몰아친다. 대부분 등산로가 탁 트인 개활지여서 겨울의 눈보라나 강풍을 피하기도 어렵다. 겨울 등산객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두꺼운 옷, 장갑, 모자, 아이젠 등 겨울 등산 장비를 챙겨야 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글과 사진으로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wakaru@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OK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행정자치부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